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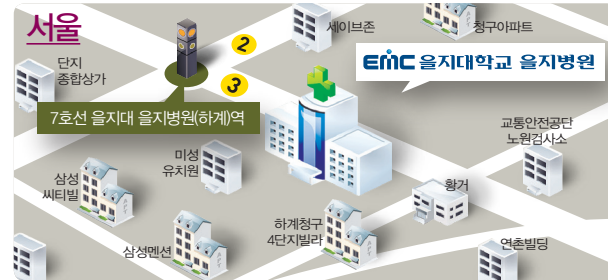
항암 약물치료

항암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역시 암의 종류나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됩니다. 항암 약물치료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서, 암세포를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여 암세포의 전이 및 재발을 막아 완치에 이르게 하는 것과 말기환자에서 암에 의한 고통과 불편을 완화시켜 생명 연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한편 항암 약물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차에 따라 약간씩 조절될 수 있으며, 만약 환자가 계획된 치료를 견디지 못하거나 병이 계속 진행될 때에는 치료약제나 치료방법을 바꿔 시행하기도 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엘지대학교 엘지병원 | 02) 970-8631

엘지대학교병원 | 042) 611-3163

홈페이지 | www.emc.ac.kr

통합콜센터 1899-0001

예약상담시간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

EMC **엘지대학교의료원** **엘지재단**

엘지대학교(대전캠퍼스) | 엘지대학교(성남캠퍼스) | 엘지대학교병원 |
엘지대학교 엘지병원 | 엘지대학교 강남엘지병원 | 범석학술장학재단 |
엘지인력개발원 | 엘지생명과학연구소 | 엘지재단빌딩

엘지재단 Since 1956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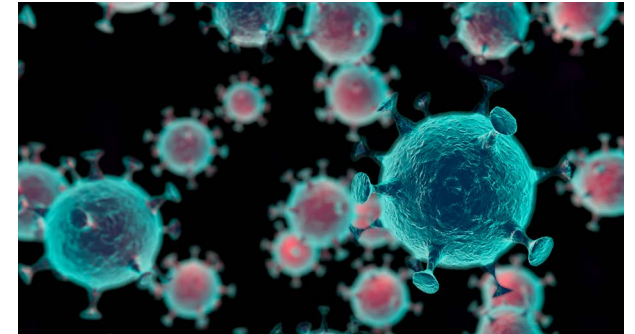
혈액종양내과 항암치료



EMC **엘지대학교의료원**



암이란?



분화된 세포가 어떤 원인에 의해 무한정 증식하여 정상조직을 침범, 파괴하는 질환으로 인체 대부분의 세포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치료의 개념

암치료에는 최신 의학적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수술을 비롯한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치료, 이들 치료의 병용요법 등이 이용되며, 암의 종류와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됩니다.

암치료의 목적은 암세포만을 없애는 것이지만 일부 정상세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암치료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의사와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항암 약물치료의 기간

항암제는 일정한 주기로 투여됩니다. 한 주기는 항암제투여기와 휴식기(손상받은 정상세포가 회복되어 다음 주기의 치료를 준비하는 시기)로 이루어지며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 매주 한번씩 또는 매달 한번씩 일정기간(3~7일)동안 투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이상 치료가 진행되지만 암의 종류와 치료의 목적, 사용되는 약제의 종류, 약물에 대한 암의 반응에 따라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암 약물치료의 투여방법

경구복용을 비롯, 근육주사, 피하주사, 정맥주사, 복강내 또는 흉강내 주입, 뇌척수강내 주입 등의 여러 방법 가운데 환자상태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선택됩니다.



항암 약물치료의 부작용

암세포는 성장과 분열이 빠른 세포이며 항암제는 이러한 세포를 죽이도록 만들어진 약제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세포 가운데도 암세포처럼 빨리 자라는 세포가 있어 항암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암제의 영향을 받는 정상세포에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와 소화관 세포, 생식세포, 그리고 모낭세포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심장, 신장, 방광, 폐, 신경계의 세포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세포의 경우 항암제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적혈구 수가 감소되면 빈혈이 유발될 수 있고, 외부 세균이나 감염에 대한 방어작용을 하는 백혈구 수가 감소되면 폐렴이나 기타 감염이 생길 수 있으며, 출혈 시 지혈작용을 하는 혈소판수가 줄어들게 되면 위장관 및 잇몸 출혈 혹은 비출혈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1주일마다 한번씩 병실 혹은 외래에서 혈액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소화관 세포가 항암제의 영향을 받게 되면 구강염이나 오심, 구토 및 설사 등이, 생식세포가 영향을 받게 되면 불임 등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전신쇠약이나 호흡곤란, 혈뇨, 어지러움증, 근육통 등 약제에 따른 전신증상 및 각 장기의 이상증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약물투여를 중단하면 대부분 소실되지만 손발저림을 비롯한 몇몇 증상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 보조적 치료에 의해 이러한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빈혈 시에는 수혈을, 백혈구가 감소했을

때는 백혈구를 올리는 약물주사를, 혈소판이 감소했을 때 혈소판 수혈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심, 구토 등의 위장관 증세가 심할 경우에도 이를 감소시키는 약제가 이용되며 설사나 그 외 여러 장기의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면 지사제나 수액제를 투여하는 등 그때그때 치료 방법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만약 퇴원 후 이러한 항암 약물치료에 의한 증상이 발생하면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병원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탈모 등은 현재 치료 방법이 따로 없으나 항암 약물치료가 끝나면 차츰 회복됩니다.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이러한 부작용은 단지 약제의 부작용이므로 병의 진행정도나 항암 약물치료의 효과를 판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암 약물치료의 효과 판정

정기적으로 신체검사, 혈액검사, 단순엑스선검사, 초음파검사, 동위원소촬영, 전산화단층촬영(CT검사) 등을 통해 항암제에 의한 치료 효과를 판정하게 됩니다. 보통 3회의 항암제 치료 후 검사를 시행하지만 환자의 상태나 암의 종류에 따라 검사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암 약물치료시 영양관리 및 식사원칙

암환자들은 몸의 면역체계가 억제되어 있으므로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식품과 충분한 영양섭취를 해야 인체의 면역기능을 적절히 유지해 부작용에도 잘 견디어 낼 수 있게 됩니다.

- ① 우유군: 우유, 요구르트, 치즈
- ② 육류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어패류, 계란(단, 항암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는 생고기나 생선회 등 익히지 않은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③ 과일군: 싱싱한 야채와 과일
- ④ 곡류군
- ⑤ 유제품
- ⑥ 기타 상품화된 식품: 그린비어, 뉴케어, 엔슈어

한약이나 시중에 판매하는 건강식품은 그 성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가능한 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느릅나무, 돌미나리, 개구리, 뱀, 소나무 껍질, 장어, 녹즙, 율담, 봉어, 영지버섯, 아가리쿠스, 보약, 개소주, 흑염소 등.)

따라서 반드시 권장해야 할 음식을 다시 요약하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및 유제품, 싱싱한 야채와 과일, 익힌 생선 등입니다.

식욕증진을 위해 가까운 거리 산보하기 등 간단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적은 양으로 많은 열량을 내는 음식을 소량씩 여러 번에 나누어 먹도록 합니다.

입안이 쓰리고 아플 때에는 음식을 잘게 썰어서 조리하고 씹고 삼키기 좋은 부드러운 음식(바나나, 과일 통조림, 삶아 으갠 감자, 계란 반숙, 죽, 익힌 채소, 고기국물)을 먹도록 합니다. 마실 때는 빨대를 사용하고, 음식물은 차게 하거나 상온으로 하여 먹으면 좋습니다. 또한 생야채나 마른 음식은 피해야 하며 식사 후에는 입안을 자주 헹구어 음식물 찌꺼기에 의한 세균감염을 막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심을 느낄 때는 짹짹한 과자,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살코기, 과일통조림 등이 도움이 되며 기름진 음식이나 당도 높은 음식, 맵고 뜨거운 음식 등은 피하고 식사하는 동안 음료를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외 시간에 음료를 차게 하여 빨대로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